

한은 “급속한 고령화에 소득불평등 심화”

향후 10년 불평등, 과거 20년의 2/3 수준...“은퇴 후 재취업 활성화돼야”

고령화에 따라 향후 10년 간 연령 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가팔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노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을 활성화시켜 소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14일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을 통해 “우리 가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민규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평등도 확대를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여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에서 이들 연령층의 인구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르며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차장은 “경제주체들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의미해지고 은퇴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특히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유형별로 분해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은 가운데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의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고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사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은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손 차장은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 11% 수준인 반면, 60~69세의 경우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의 연령 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간(2001~2020년) 누적된 연령 효과의 3분의 2로 추산되며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손 차장은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광주·전남 5월 취업자 2만4000명 ↑

호남통계청 5월 고용동향...실업자 5000명 감소

5월 광주·전남지역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2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광주시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6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8000명, 5.8%), 농림어업(5000명, 29.9%) 등이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5000명, -2.9%), 광공업(-3000명, -2.3%), 건설업(-1000명, -1.6%) 등에서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1%로 1.1%포인트 상승했다.

5월 광주시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감소했다. 5월 전남도 고용률은 68.7%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104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3000명, 3.5%), 건설업(8000명, 11.0%)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 -2.3%), 농림어업(-4000명, -1.6%),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00명, -2.7%) 등에서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3.4%로 0.9%포인트 상승했다.

5월 전남도 실업률은 1.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했다. /권형안 기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최고 6%

5대 은행·기업은행 기본금리 연 4.5%

최고금리 연 6%로 11개 은행 동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취급 은행의 최종금리가 확정됐다.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연 4.5%로 상향 조정됐으며 참여 은행들은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참여 은행 모두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기본금리는 기업은행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연 4.5%를 제공한다. 이어 대구·부산·경남은행 연 4.0%, 광주·전북은행 연 3.8%이다.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0.5%포인트로 11개 은행 모두 같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고 1.0~1.7%

포인트로 나타났다. 광주·전북은행 1.7%포인트, 대구·부산·경남은행 1.5%포인트,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은 연 1.0%포인트를 제공한다.

해당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나 마케팅 등의, 카드결제, 최초개통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로 같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총 12개 취급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금리를 공시하지 않았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6~1.3%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0.6%로 가장 낮으며 전북은행이 1.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때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에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뉴스

기본 좋은 상상이 일상으로

상상일상 PROJECT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인덕션 X 가리보이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인덕션과 함께 인식되는 일상을 누릴 3,313분을 모십니다

기간: 6월 14일(수) ~ 7월 23일(일)

혜택 1 50만원 할인

혜택 2 설치비 무료

혜택 3 무상 환불

엘지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GE.COM

LG전자는 내달 23일까지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와 인덕션을 체험할 고객을 각 3313명씩 모집하는 '상상일상(3313)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고객은 한 달간 제품을 써본 뒤 최종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성공 다짐 선포식

여수광양항만공사, 법 개정에 따른 사후활용 주체 변경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14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이 박람회장 사후활용 성공 다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박람회장 한국관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선포식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관리주체가 YGPA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YGPA가 실시하게 될 사후활용의 성공을 다짐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개최했던 여수세계박람회는 104개국 참여, 820만명이 방문했던 성공적인 박람회였지만 이후 부진한 사후활용으로 지역사회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역사회·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선포식은 박람회장 이관 경과보고,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주철현 국회의원과 정기명 여수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사, 박성현 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참석자들이 사후활용 성공을 다짐하며 비전봉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광양=조순의 기자

특히 청사진을 담은 영상에서는 대형 랜드마크와 공중 스카이라이프(투명유리길)가 제시됐으며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에펠탑, 두바이의 부르즈할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포부를 밝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성현 YGPA사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해 여수를 시드니, 나폴리, 리우데자네이루에 버금가는 세계 4대 미항으로 발전시켜겠다"면서 AI자동화도시, 첨단미래도시, 친환경도시의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전남도, 여수시 등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YGPA는 정원 15명 규모의 사장 직속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날 선포식을 맞아 18일 까지 박람회장에 위치한 빅오쇼를 무료로 개방한다. /광양=조순의 기자

LH 빛그린산단 내 마지막 물류시설용지 5필지 공급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5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합평군 월야면 외치리에 위치한 물류시설용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빛그린산단 내 마지막 물류시설용지로 면적은 8489~1만6063㎡, 공급가격은 3.3㎡당 76만원이다. 이는 인근 물류시설용지인 평동산단(3차) 대비 52%, 진곡산단 대비 39%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 22번 국도 영광~광주 구간 왕복4차로를 이용해 빛그린산단 물류시설용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최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 시기는 2024년 10월이다.

기아 AutoLand광주-협력사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안전보건수준 격차 해소·안전문화 정착 결의 중대재해 핵심 위험요소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문화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기아 AutoLand광주(공공장 박래석)는 14일 협력사와 안전보건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형 상생 우수모델을 확산시켜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자 협력사와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기아 AutoLand 광주 주관하에 광주/전남권 협력사 80개사와 광주광역시청, 광주지방공

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폴리텍 관계자가 함께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 대회를 통해 기아는 협력사와 함께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결의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네가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첫번째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

단 및 점검지원을 통해 자율 안전보건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협력사 안전등급제를 운영한다.

두번째 협력사 3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인식체계구, 작업환경, 화재안전 등 현장부인과 경영자 리더십, 안전교육, 공사안전관리 등 서류부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자율적이행을 지원한다.

세번째 협력사와 월1회 안전보건협의체를 열고, 분기 1회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체계를 구축해 지속 관리한다.

네번째 상시적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해 안전개선제안을 접수 받고 관련 내용과 진행사항을 공유한다.

기아 관계자는 “금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협력사와 함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전남도, 중국 동북지역 신시장 개척

1667만 달러 수출협약...222만 달러 상담 성과



전남지역 기업들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북지역 수출길이 뚫렸다.

전남도는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진출 확대를 최근 6일 간 중국 장춘과 다롄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 1667만달러 수출협약과 222만달러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동북지역 시장개척단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만이다.

농수산식품 7개 기업과 비료 등 공산품 4개 기업이 참여했다. 11개 기업이 62개 현지 구매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성과를 냈다.

장춘에선 39개 구매자가 총 110건의 수출입 상담을 하는 등 전남 농수산식품과 공산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호성’의 아로니아 제품, ‘아라움’의 스낵류, ‘완도물산’과 ‘완도밤’의 김·해조류가 189만달러 상

당의 수출 상담을 했다.

다롄 세계박람회광장에서 개최된 ‘제36회 다롄수출입상품박람회’에도 참여해 전남의 제품을 알리고 현지 구매자들과 수출 상담을 했다.

박람회에선 밀키트 제품이 큰 관심을 받은 가운데 ‘삼면이 바다’가 전시한 밀키트와 해조류를 활용한 페스트 제품이 인기를 끌어 1667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신현권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수출 확대를 촉진하고, 7월 중 중화권 구매자를 초청해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